

## 과야를 지나며 (막 1:9-13)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 자생하는 아주 특별한 대나무가 있습니다. 우후죽순이란 말이 있듯이 대나무는 눈에 보일 정도로 성장이 빠릅니다. 그런데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특이하게도 심은지 5년이 지나도 3cm 정도의 싹만 보이다가 어느 날 자라나기 시작하여 주성장기인 4월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80cm 씩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약 3개월 만에 30m가 되는 크기로 자라나서 거대한 대나무 숲을 이룹니다. 5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땅속으로만 뿌리가 깊숙하게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죽은 5년이란 세월동안 왜 자라지 않았던 것일까요? 의문을 가진 학자들이 땅을 파 보았더니 대나무의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 뿌리의 길이를 합하면 10리가 넘도록 땅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5년간 숨죽이듯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며 내실을 다지다가 5년후 당당하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자란 모죽은 30m 이상 높은 허공에서도 태풍과 같은 거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지금 이 순간을 허송세월하며 보내는 것이 아닌, 모죽처럼 인내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시간이 모두 지난 뒤에는 엄청난 성장이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1. 예수님은 공생애(公生涯) 3년을 위해 30년동안 준비하시고, 공생애 사역 직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1) \_\_\_\_\_

2) \_\_\_\_\_

2. [광야]를 히브리어로 'מִדְבָּר'(밋드바르) 하는데, 이 말은 [지성소]를 뜻하는 'דְּבִיר'(드비르)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3. 다윗의 주옥같은 시편의 대다수는 안락한 왕궁이 아닌 '광야' 한복판에서 쓰여졌습니다. 왜 시편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4.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면 공통적으로 다닌 학교가 '광야신학대학'입니다. 이 학교의 출신과 수업과정(커리큘럼)이 무엇인지를 설명보시기 바랍니다.

1) 출신: \_\_\_\_\_

2) 수업과정(커리큘럼): \_\_\_\_\_

5.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상황은 비슷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도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6.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께 “가장 은혜가 되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라고 여쭙보면, [갈릴리] 또는 [유대광야]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적용]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 사람은 누구나 준비된 만큼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성장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잘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 이전에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